

불교초전지

신라 - 도리사 일대
백제 - 영광 법성면
가야 - 김해시 일원

성역화

경주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교통영향평가 '부실'

감사원, 재평가 지시

경주시가 황성공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황성공원 일대 31만여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경북도의 지시를 어기고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는 1만3천여평에 대한 평가만 실시한 것. 이는 감사원이 작년 11월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실내체육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밝혀졌다. 경주시는 2백38억원을 들여 황

성공원내에 실내체육관 야구장 레포츠시설 등이 들어서는 종합체육공원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에 착공했으나 동국대 경주캠퍼스교수회 경주경찰서 등 시민단체들은 부지가 부적절하다며 거세게 항의해 왔다. 감사원은 담당공무원 3명의 징계와 재평가를 경주시에 지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체육공원 건립계획이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실내체육공사는 52%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송광사서 개원

3월 5~27일

조계종 제14기 행자교육원이 오는 3월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송광사에서 개원한다. 교육원(원장 암도)은 97년 10월5일 입산행자로 10월20일까지 교육원에 행자등록을 필한 자 등 교육대상자격을 포함한 행자교육원 일정을 2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4일부터 12일까지 입산신청서를 각 교구 본사별로 접수받는다.

특히 이번 행자교육부터는 교육후 시험을 실시하던 종전과는 달리 입재하기전 시험을 실시해 기존 미달자는 입방을 허용치 않으며, 지난해 확정된 사미·사미니복도 착용해야 한다.

선학원 행자 17명 신청 조계종 불허통보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달 선학원이 제출한 행자교육원 입방신청서 17건을 일괄 반려했다. 조계종의 이번 조치는 종단과 선학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에 대한 각종 규제(종원 9조4항)

를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선학원과 종단간의 실무협의회의에서 아무런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학원은 "대화를 통한 종단과의 문제해결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음에도 종단이 재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 못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기초선원들에 대한 입방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조계종 선학원 문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울 운영지침 설명

조계종 17일 본사주지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가 17일 오전10시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금모금법치정병을 비롯 금년 종단운영지침 설명에 대해 설명했다. 또 나라경제살리기 금모으기운동을 각 본사가 적극적으로 전개해 줄 것도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 & 뉴스

11일 동안거 해제

정축년 동안거가 11일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선원과 기초선원에서 재히 해제법회를 봉행한다.

교불련 새회장 28일 선출

한국교수불자연합회(교불련, 회장 류종민)는 28일 정기총회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새 회장은 수석부회장이인 조희영교수(동국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불련 회장 임기는 2년이나 지난해 류종민교수(중앙대)가 회장을 맡으며 1년 임기를 조건으로 수락,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것이다.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20, 21일 화성 신홍사에서 제2회 불교사회복지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1박2일 출가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는 '불교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강연과 '반야심경' 사경, 참선 등이 실시된다.

자원지도 간사단 발족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지난 7일 현성정사에서 자원지도 간사단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1박2일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간사단은 정교련 출신 청소년지도자 중 12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프로그램의 실제와 회의지도기법, 자원봉사활동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논의를 가졌다.

청소년에 노래방 무료개방

인천 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스님)은 최근 부부나포교인 범명사 교육회관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 1주일에 한번 인천관내 청소년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다. 인천유해환경감시단은 노래방 기기를 필요로 하는 학교, 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에 무료 대여할 방침이다. (032)577-0266

유적정비·성지순례코스 개발·학술조명

한국불교의 첫 전래지들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성역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라불교의 발상지인 구미시 도개면 도개2리와 도리사, 백제불교의 초전지인 영광 법성면 진내리일대, 가야불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김해시 일원. 그동안 학계의 논란이 돼 왔던 이 지역들이 최근 학계의 고증을 받아 불교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한국고원대 박물관(관장 정영호)에 모례정(井), 도리사 등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는 도개면 일대에 대한 학술조사를 의뢰, 신라불교의 초전지임을 재확인했다. 놀지왕때 고구려로부터 온 아도화상이 모례네 집에서 숨어 살며 불법을 전했다는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기록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 모례네 집과 우물, 신라불교발생의 중심지이며, 도리사가 신라 최초의 사찰임을 고증한 것. 주변에 산재해 있는 주석사지·죽림사지·보천사지 등 큰 절터와 낙산동 3층석탑·죽장사 5층석탑 등의 거대한 석탑, 해평동 석불입상·진평동 마애삼존불 등 통일신라시대의 우수한 불교유적은 당시 사람들이 이곳을 순례하면서 일으킨 불사의 증거로 추정했다. 이에따

라 구미시는 도개2리 일대를 사적으로 지정·보존하는 한편 불교성지로 개발해 신도들의 순례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99년까지 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법성면 진내리 일대 2만여㎡를 관광명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법성면 진내리 일대는 침류왕1년(384) 인도승려 마라나타가 백제에 처음 불교를 전한 곳. 이를 위해 영광군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에 기본조사 및 설계 용역을 의뢰, 2월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높이 11m, 좌대 5m 규모의 마라나타상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인근의 불갑사지구, 원불교 성지 등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코스로도 개발한다.

김해시도 오는 5월 국립김해박물관 개관에 맞춰 가야문화관광벨트를 조성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1만9천1백㎡ 규모의 유적정비 및 문화시설 조성은 200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허황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 초산대 마애불 및 부처님 발자국 등 가야불교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도 구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거서 기자>



IMF합퇴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출국하고 있는 가운데 1월25일 네팔불자모임회원들은 '새해맞이 한마당'을 갖고 합수를 달았다.

외국인불자 속속 'IMF 출국'

환율상승·불법체류자 방출여파
네팔불자모임 회원 50% '고향으로'

최근 IMF 환율체제로 국내 산업현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들의 정신적 심타가 되어온 교계 사찰과 단체들이 대적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업과 환율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평소보다 두배로 증가했기 때문. 자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하는 외국인들을 이해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간혹 기대감으로 귀국을 망설이는 외국인들의 생계대책까지 상담을 해야한다. 현재 교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모임을 운영하는 곳은 자비와집 '네팔불자모임'을 비롯 부천 석왕사의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모두 세 곳. 네팔불자모임은 회원 3백여 명 가운데 1월까지 절반 이상이 귀국을 한 상태다. 그나마 남은 회원의 대부분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석왕사 외국인노동자의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해결에 앞장서던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특히 귀국을 주저하는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경제상황을 설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체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1월 외국인 연수생제도 폐지와 함께 불법체류자 15만 명을 연내 강제출국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 <경>

모조석굴암 건립 반대여론

황룡사지전시관 건립 반대여론

불교학계·문화재관계자들 "재고해야"

경주 불국사가 추진중인 석굴암 경내 모조 석굴암 건립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학계와 문화재 관계자들은 기존 석굴암(국보24호)의 보존보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조 석굴암 건립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반대여론을 보이고 있다.

불국사는 오는 4월부터 2003년까지 1백59억5천만원을 들여 석굴암 남쪽 요새 아래에 모조 석굴암과 자료관을 조성키로 하고 2월2일 문화재관리국에 현상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즉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위해 형질변경과 신축허가를 등을 요청한 것.

불국사부주지 성천스님은 "20여년전 석굴암전시에 유리보호벽이 설치되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결과현상이 진행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모조석굴암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개방

하고 국보를 온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작년부터 문화재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하여 은밀히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관계자들은 결코 현상과 외부 콘크리트등의 균열 현상 등으로 해체보수가 논의되는 현 석굴암을 둔채 모조품을 건립하는 것은 남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본지 149호 21면 참조> 또 경북도와 경주시가 황룡사지 인근에 추진중인 황룡사9층목탑형 전시관에 대해서도 지역불교계에서는 원형복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즉 황룡사지 인근에 역사적 고증이 되지 않은 황룡사9층목탑의 추정모형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면 원형복원은 물론건너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문화재관리국은 황룡사의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진관스님 석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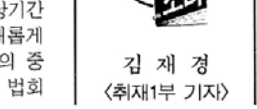
세계고문방지기구 촉구

세계고문방지기구(The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진관행동 촉구문'을 1월29일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 인권단체와 네티즌들에게 퍼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진관행동 촉구문을 통해 진관스님의 구속을 '인권활동가에 대한 억압행위'라고 전제하고 스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청와대와 법무부로 쓸 것을 호소했다.

지난 1월21일 경기지방경찰청 강당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 경승연합회(회장 우담) 창립 법회와 경승실 개원법회가 봉행됐다. 특히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한 관사에서 3~5명 이상 명칭장이 천주교인인 사실 등이 밝혀져 스님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축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 경승연합회 창립을 적극 후원한

경승 대 경목 김덕순 前정장과 천사령 前차장이 창립법회 불과 10일 전에 각 각 탈출수 신장원 검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주경찰대학교 교장으로 좌천 또는 보직해임된 것이 주요했다. 이는 종교간의 갈등을 미리 막고자 한 자비문중의 제자 다룬 처세로서 납득이 가지만 지

회가 소리로써 이뤄졌다. 이유는 경기지정 소속 경목(48명)들의 반발과 경무과 소속 기독교인과의 갈등, 신임 이근 명칭장이 천주교인인 사실 등이 밝혀져 스님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축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 경승연합회 창립을 적극 후원한



김재경 (취재1부 기자)

경승 대 경목

김덕순 前정장과 천사령 前차장이 창립법회 불과 10일 전에 각 각 탈출수 신장원 검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주경찰대학교 교장으로 좌천 또는 보직해임된 것이 주요했다. 이는 종교간의 갈등을 미리 막고자 한 자비문중의 제자 다룬 처세로서 납득이 가지만 지

나치게 몸을 사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간 경기경찰청에는 3명의 경승이 위촉되어 있었으나 활동이 없었으며, 48명의 경목이 매일 2회정도 정진교육을 실시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기 광주경찰서 경승실장 경승스님(칭명사)등 뜻있는 경승들이 불자인 김덕순 전 청장을 설득해 경승 23명을 한꺼번에 위촉하는 결과를 보게 된 것. 결국 어렵게 얻어낸 성과를 창립법회를 통해 널리 알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관계된 스님들이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포교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경찰청 경승실장인 우담스님(금릉사 주지)은 "경목과 같은 숫자(48명)의 경승을 위촉하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후(嬪)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언뜻 태중에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흰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써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造)시킵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무리해지면 점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약하고 혈(血)이 통치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으로부터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 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 | |
|--------------------------------|-----|
| 해당되는 증상(0) 하십시오. | () |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 5. 기미가 있다. |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
| 13. 밤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
| 15. 목이 뼈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 16. 변비가 있다. | () |
| 17.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생을 받는다. |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진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만 뿐 통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 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던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